

## 귄터 그라스의 나치 전력 논쟁

김 누 리, 중앙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2007년 3월

“나는 나치 무장친위대 대원이었다.” 2006년 8월 한 신문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귄터 그라스가 던진 한 마디 말이 독일의 여론을 한바탕 논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였다. 그라스는 지난 수십년 동안 ‘독일의 도덕적 양심’이자 ‘나치 과거 청산의 기수’였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불러 일으킨 충격은 컸고, 그의 도덕성을 둘러싼 논쟁은 뜨거웠다.

그라스에 대한 비판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그가 나치 특수부대인 무장친위대 대원이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이에 대해 그동안 침묵해왔다는 데 대한 비판이며, 셋째는 그의 고백이 신간 소설 판매를 위한 상업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그라스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거셌다. 첫째, 그라스가 무장친위대였다는 사실은 그를 비판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강제 징집당한 17세의 청년에 불과했고, 그가 징집될 당시 무장친위대는 나치의 특수부대가 아니라, 정규군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둘째, 그라스는 자신의 ‘나치 과거’에 대해 침묵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공공연하게 강조 하면서 자신의 정치 참여의 이유로 삼아왔으며, 무장친위대에서 복무했다는 사실도 가까운 사람들은 대개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셋째, 그의 고백이 신간 판매를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은 그야말로 독일 사회의 ‘정신적 품격’을 낮추는 저열한 비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라스 논쟁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이 논쟁 과정에서 분명해진 것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그라스의 성찰이 ‘과잉 청산’의 수준으로까지 엄격해졌다는 것이며, 둘째, 이 논쟁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그라스의 ‘숙적인 보수 정치인’과 언론의 공세에 진보 정치인’과 언론이 반격하는 형국을 취했다는 것이며, 셋째, 이 논쟁은 개인적인 과거 청산이 공론장에서 정치적으로 왜곡되는 독일 사회 특유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는 것이고, 넷째는 이 논쟁이 그라스 세대를 토대로 하여 구축된 독일 사회의 불안정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발 행 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 협력 사무소

편 집 인: 베르너 캠페터,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안두순, 안석교, 양민석, 이삼열, 정범구, 정현백, 최연혜 (가나다 순)

주 소: 110-742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 빌딩 1101호

Tel: (02) 745-2648/9, Fax: (02) 745-6684

e-mail: feskorea@fes.or.kr & fesrok@fes.or.kr

http://www.fes.or.kr

“귄터 그라스의 고백. ‘나는 나치 무장친위대 대원이었다’”

2006년 8월 11일, 베를린 교외 베르나우의 한 작은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펼쳐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의 1면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귄터 그라스가 나치 친위대원이었다니. 바로 몇 주 전 나는 그라스와 만나기 위해 비서와 통화를 했고, 그가 덴마크에서 휴가 중이며 9월초에 나올 신간 때문에 바쁜 시기라 당분간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터였다. 귄터 그라스의 소설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2년엔 그를 한국에 초청하여 일주일간 동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문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그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귄터 그라스가 누구인가. 지난 반세기 동안 누구보다도 철저히 나치 잔재의 청산을 위해 싸워온 독일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자, 독일의 과거 청산을 평생의 문학적 주제로 삼아 작품을 써온 대표적인 참여 작가가 아닌가. ‘좋은 독일의 상징’, ‘독일 정체성의 원천’, ‘독일의 도덕적 양심’, ‘독일 좌파 지식인의 대변인’으로 불려온 그가 나치 친위대원이었다니 말이 되는가.

이날 밤 뉴스에서도 그라스의 과거를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보고, 다음날 나는 그라스의 절친한 친구로 그에 대한 방송 기획물을 여러 차례 만들었고, 그라스의 방한 때도 동행했던 독일국영 북서부 방송(NWR) 편성국장 외르크 디터 코젤을 만나 사정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곧 출간될 예정인 그라스의 자전 소설에 나오는 작은 에피소드를 언론이 과장해서 보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 며칠 지나면 논란이 잦아들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논란은 점차 확산되었다. 나는 8월 중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라스의 고백’을 다룬 여러 독일 신문들을 보아야 했고, 또 며칠 후에는 슈피겔 표지에서 나치친위대

마크인 SS가 그려진 철모를 복채로 두드리는 노인 그라스의 캐리커처를 감상해야 했던 것이다. 거기엔 슈피겔 특유의 기가 막힌 제목까지 달려 있었다. “양철북 고수(鼓手). 도덕의 사도가 때늦은 고백을 하다.” 게다가 한국의 신문과 방송에서도 그라스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이런 판국에 조선일보 기자가 전화를 걸어와 ‘지식인의 도덕적 위선’ 운운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분석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청탁을 거절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지만, 내겐 그라스 논란 자체보다도 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 독일뿐만 아니라, 지구를 반바퀴 돌아 이곳에서까지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정황이 더 흥미로웠다.

이런 차에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원고 청탁을 받았고, 이참에 한번 그라스 논란을 정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그라스 나치 전력 논쟁의 전개 과정과 쟁점을 소개하고, 사안의 진상을 살펴본 후에, 이 논쟁이 갖는 의미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FAZ), 쾰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 SZ),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Frankfurter Rundschau: FR), 타게스차이퉁(tageszeitung: tz), 빌트(Bild) 등 독일의 주요 일간지와 슈피겔(Der Spiegel), 디 차이트(Die Zeit) 등 권위 있는 시사 주간지, 그리고 한국의 주요 일간지들을 참고했음을 밝혀둔다.

## 1. 논쟁의 전개

2006년 8월 10일에 귄터 그라스는 9월초에 출간될 예정인 자전 소설 『양과 껍질을 벗기며(Beim Häuten der Zwiebel)』와 관련하여 FAZ와 대담을 가졌다. 프랑크 슈르마허와 가진 이 대담에서 그는

이 소설이 자신이 겪은 단치히(현 그단스크)의 유년기, 제2차 세계 대전, 전쟁 포로 시기, 전후의 혼란기를 그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특히 전쟁 말기 몇 달 동안 그에게 일어났던 에피소드가 논쟁의 발단이 된 것이다. 그는 히틀러 소년 단원이던 15세 때 자발적으로 잠수함 부대에 지원했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후 공군 보조원으로 노동 봉사를 하던 중, 17세 때인 1944년 9월에 나치 무장친위대 소속인 프룬츠베르크 사단 - 정확하게는 '프룬츠베르크 제10 기갑사단' - 에 징집되었다는 것이다. "내 나이 또래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우리는 노동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탁자 위에 징집 영장이 놓여 있었다. 드레스덴에 도착해서야 그곳이 무장친위대라는 것을 알았다."

그라스의 대답은 다음날 "퀀터 그라스의 고백. 나는 무장친위대 대원이었다"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FAZ의 1면을 장식했다. 선한 독일의 상징인 '퀀터 그라스'가 악한 독일의 징표인 '나치 친위대'였다는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시켰고, 즉시 격렬한 논쟁을 점화시켰다.

그라스에 대한 초기 비판은 우선 '독일의 양심'으로 통하던 그의 도덕성에 모아졌다. 198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폴란드의 대통령을 지낸 레흐 바웬사는 빌트 지와의 대답에서 격한 어조로 그라스를 비판했다. 그는 "그라스가 좀 더 일찍 과거를 고백했다면 과연 노벨상을 받았겠느냐"면서, "그라스를 만나면 결코 악수하지 않겠다"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그는 "나치 친위 대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 결코 단치히 명예 시민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스스로 명예 시민권을 반납하라고 요구하였다. 독일유대인중앙협의회 회장인 샤를로테 크로블로흐는 빌트 지를 통해 "그는 지금까지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주의자가 아니었던가. 그의

오랜 침묵은 그가 지금까지 해온 많은 말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하였고, 독일 기민당 의원인 볼프강 뵘젠도 역시 빌트 지와 가진 대답에서 "지금까지 그는 정치인들을 향해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왔다. 이제는 그 도덕성의 잣대로 자신의 도덕성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뵘젠은 그라스가 노벨상을 반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민당 소속의 연방의회 의장인 노르베르트 람머르트도 그라스의 '이중 모랄'을 비판했다. 그라스는 비슷한 상황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한 도덕적 평가를 했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다른 조건들을 살펴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가이자 FAZ 발행인이었던 요아힘 페스트도 '독일의 도덕적 권위'로서 그라스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면서,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의 중고차를 사지 않겠다"는 말로 그라스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고, 작가인 페터 한트케는 FAZ에 쓴 기고문에서 그라스의 도덕성을 지적하며 이 논란을 독일 "문단의 치욕"이라고 극언했다.

한편 그라스의 과거를 둘러싼 논쟁으로 그의 자전소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초 예정보다 시판이 앞당겨지고 책이 불티나게 팔려나가자, 이번에는 그의 고백이 책 판매를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는 비판이 고개를 들었다. 빌트 지는 "그라스는 독일어판 인세로만 최소 170만 유로(약 20억 4000만 원), 여기에 외국 판권료를 덤으로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며 은근히 그라스의 고백이 책 판매 전략의 일환이라는 뉘앙스를 풍겼고, 빌트 지를 소유하고 있는 독일 언론재벌 악셀 슈프링어의 부회장을 지낸 클라우스 라라스도 "그라스의 뒤늦은 고백은 그의 책을 더 많이 팔리게 할 것"이라며 공세에 가세했다. 기민당 베를린 의회 부의장인 크리스토프 슈틸츨은 "문학계의 늙은 사자 그라스는 또

한 번 스스로 천재적인 여론 조작 전문가임을 증명해보였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작가인 볼프 호호후트도 “자기 자서전의 선전자로서 그라스를 능가할 사람은 없다”고 조롱하였다.

그라스의 수십 년 정적인 보수 정치인들의 비난도 빗발쳤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FAZ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이력을 뒤늦게 밝힌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서, “나는 지금의 비판적 반응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기민당 출신으로 독일이주민연맹 회장인 에리카 슈타인바하는 빌트 지 인터뷰를 통해 책 수입금을 모두 폴란드의 나치 희생자를 위해 기부하라고 하는가 하면, 기민당 유럽의회 의원인 엘마브록 역시 빌트 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라스에게 수여될 예정인 국제교류상 수상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그라스는 “나를 파렴치한으로 만들고, 내가 평생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추후에 문제 삼으려는 언론의 지속적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 논쟁이 자신의 “실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그라스의 과거 이력과 뒤늦은 고백에 대한 보수 언론과 정객들의 격렬한 비판에 맞서 그라스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이들 비판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점차 세를 넓혀갔다.

우선 독일 현대사를 전공하는 역사가들이 그라스의 ‘무장친위대 복무’에 대한 비판이 온당치 못하다고 그라스를 두둔하고 나섰다. 예나 대학의 역사학 교수 노르베르트 프라이는 그라스의 무장친위대 복무가 ‘별일이 아니’라면서, “1944년 당시 무장친위대는 더 이상 엘리트 부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젊은이들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없

이 모두 전쟁터로 끌려갔다”고 증언하였다. 빌레펠트 대학 역사학과의 한스 올리히 벨러 교수도 그라스가 무장친위대였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면서, “그 세대에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정상적인 운명”이라고 했다. 그는 “무장친위대는 나치 친위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것은 언젠가는 정규군을 흡수하기 위해 힘들려가 만든 것이다. 전쟁이 더 계속되었다면 무장친위대는 백만 명을 넘어섰을 것이다.” 또한 그는 그라스가 소속됐던 프룬츠베르크 사단은 “어떤 학살도 저지르지 않은 순수한 후방 부대”였다고 하면서 “그라스의 도덕적 권위는 이 일로 손상 받지 않는다”고 평했다.

그라스의 ‘침묵’에 대해서도 그를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슈뢰더 정부 대변인이었던 사민당의 우베 카르스텐 헤이에는 이 논쟁을 “그라스에게는 걸맞지 않은 유령 논쟁”이라고 규정했다. “그라스는 나치 시대에 얽혀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숨긴 적이 없다. 그것은 테러 정권이었고, 어디에서나 범죄가 저질러졌다. 무장친위대에서건, 정규군에서건 말이다. 그라스는 이러한 체험에서 교훈을 얻었고, 나치 시대를 무해한 것으로 치장하는 자들과 치열하게 맞서 싸워왔다.” 오스트리아 작가 로베르트 윈들은 그라스가 무장친위대에 복무한 사실을 결코 숨기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주목받았다. “그라스는 20년 전에 나에게 그사실을 이야기했다. 그것도 사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다.” 그는 “그라스가 지금 스스로 공개적인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해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 후 그라스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의 용기있는 고백을 존중한다는 작가들의 입장 표명이 봇물을 이루었다. 독일펜클럽 회장인 요하노 슈트라서는 “그라스가 지금이라도 스스로 과거를 밝힌 것은 놀라운 일”이라면서 “그에 대한 도덕적 신뢰는

변함이 없다”고 하였다. 그는 그라스에 대한 비판이 “끔찍스러울 정도로 과장되었다”고 하면서, “그라스는 자신의 과거를 결코 은폐한 적이 없다”고 단언하였다. 베를린예술원 원장인 클라우스 슈텍도 “일단 흥분이 가라앉으면 그라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그라스의 예술 작품과 정치적, 도덕적 인품은 그의 고백 이후에도 의문의 여지없이 훌륭하다”고 하였다. 독일 통일을 둘러싸고 그라스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던 마르틴 발저도 이 논쟁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그라스를 옹호하였다. 그는 그라스가 “스스로 고백한 것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면서, “누구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라고 일갈하였다. 에리히 뢰스트도 그라스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작가로서 그라스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라스는 매우 어렸고, 그를 반대쪽으로 이끌어줄 사람도 없었다. 그라스의 고백은 비난 없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디터 벨러스호프는 “사람은 결국 그가 태어난 세상에서 사는 법”이라면서, “그라스의 고백을 가지고 작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발터 엔스는 그라스의 고백을 “사려 깊고, 정확하고, 이성적”이라고 평하였다. “문학의 거장이 심사숙고한다. ‘내가 이 긴 인생에서 잊고 쓰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는 그것을 채웠고, 나는 그를 존경한다.” 특히 귄터 쿠너트는 그라스를 ‘문단의 치욕’이라고 한 페터 한트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트케의 비판은 “너무 늦게 태어난 자의 무자비한 목소리”이며, 한트케는 스스로 “다른 작가의 성공에 깊이 상처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작가 존 어빙은 독일에서 벌어지는 그라스에 대한 비판을 “역겨운 독일 언론의 광기”로 규정하면서, 이에 맞서 그라스를 열정적으로 옹호했다. “그라스는 나에게 작가로서 또 도덕적 좌표로써 여전히 영웅이다. 작가로서 또 독일 시민으로서 그가

보여준 용기는 모범적이다. 이러한 용기는 이번 고백을 통해 부정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재확인되었다.” 철학자인 자프란스키는 그라스의 고백이 소위 ‘책 판매 전략’이었다는 선정적인 비판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라스의 고백에 대해 우리는 존경심을 보여야 한다. 그는 이 일로 호흡이 짧은 공론장에서 자신의 명예가 파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라스가 상업적인 계산에서 행동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에겐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독일사민당 쪽에서도 그라스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연방의회 부의장인 볼프강 티어제는 그라스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공인’ 그라스를 제거하기를 기다려온 것처럼 격한 말들을 해대고 있다. 그라스를 정치적, 도덕적 추방자로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라스의 삶과 작품은 변하지 않았다.” 부총리인 프란츠 뮌터페링도 그라스가 독일 민주주의에 기여한 업적을 강조하면서 “그를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고, ‘동방 정책의 설계사’ 에곤 바르는 “그라스의 평생의 업적은 그의 나치 친위대 복무와 오랜 침묵으로 손상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치 친위대의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던 폴란드인들이 분명하게 그라스의 편에 섰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인 폴란드의 추기경 요체프 미할리크가 그라스를 옹호하고 나선 것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라스는 고백을 통해 더 위대해졌다. 인간으로서도, 작가로서도.” 단치히 시장 아다모비치도 그라스의 명예 시민권을 박탈하라는 바웬사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그를 단치히로 초대하는 용기를 보였다. “그라스는 나에게 여전히 도덕적인 권위이다. 우리 단치히 사람들은 그에게 감사할 것이 많다.”

이처럼 신랄한 비판과 열정적인 옹호로 전개된 그라스 논쟁은 어떤 결말을 맺었을까. 일반 여론은 이 논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논쟁은 그라스의 도덕성에 얼마만 한 상처를 입혔고, 논쟁의 와중에 그라스에게 요구된 사항들, 예컨대 단치히 명예 시민권과 노벨상을 반납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먼저 레흐 바웬사가 그라스에게 단치히 명예 시민권을 자진해서 반납하라고 한 요구는 바웬사 자신이 스스로 철회하였다. 그라스가 8월 22일 단치히 시장 아다모비치에게 보낸 '감동적인 편지'를 읽은 바웬사는 "모든 의혹은 사라졌고, 화해의 시간이 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폴란드와 독일의 친선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하나의 유럽을 건설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천명했다. 폴란드 시민들도 사태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그라스를 이해하는 쪽으로 돌아서서, 72%의 시민들이 그라스의 단치히 명예 시민권 반납에 반대하였다. 그라스의 노벨상 반납에 대해서도 8월 21일자 슈피겔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85%, 찬성 10%로 나타났고, 같은 시기 n-TV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87%가 이번 사안이 그라스의 명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결국 약 한 달간 계속된 치열한 논쟁은 그라스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방향으로 귀착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9월 5일 <베를리너 양상블>에서 개최된 그라스의 신작 『양과 껌질을 벗기며』의 낭독회였다. 에곤 바르, 프리드리히 쇼를램머 등의 지식인들과 수많은 비평가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이 낭독회에서 그라스는 자신이 품고 있었던 수치심을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그를 '과럽치한'으로 몰았던 비판자들을 공격하였다. 디 차이트 지의 올리히 그라이너에 따르면, 이 낭독회는 "그라스가 그의 비판자들에 대해 승리를 구가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실제로 그라스는 이 논쟁으로 인해 그다지 상처를 받은 것 같지는 않다. 그는 9월 17일 베를린 시의회 선거에서 사민당의 보베라이트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고, 베를린 사민당은 그를 둘러싼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원을 환영하였다.

## 2. 논쟁의 진상

그라스의 무장친위대 전력 논쟁의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그라스가 전쟁 말기에 소속되었던 무장친위대의 성격을 둘러싼 것이고, 둘째는 과연 그가 이 사실을 지금까지 고의적으로 은폐해 왔다고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것이다. 이제 두 쟁점을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냉정하게 되짚어보자.

그라스가 무장친위대 대원이었다는 사실이 그라스의 도덕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려면 우선 그라스가 속했던 당시 무장친위대가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라스가 징집당한 1944년 당시 무장친위대가 어떤 조직이었는데 대해서는 그간 여러 전문가들이 비교적 상세히 밝혔다.

역사가인 한스 몸젠은 그라스가 무장친위대였다는 사실 때문에 그를 비판하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본다. "전쟁 막바지인 1944년 늦여름에 무장친위대에 징집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라스에 대한 여론의 흥분은 부적절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1944년 말에 무장친위대에 징집된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닐까.

원래 무장친위대는 하인리히 힘플러의 통솔 하에 있는 '친위대의 무장부대와 경찰'을 통칭하는 특수 조직이었다. 그러던 것이 전쟁 말기에는 9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지닌 부대로 성장하여 정규군에 배속되었다. 부대 규모가 확장되면서 초기의 지원병 원칙은 폐기되었다. 역사학자 베르트 베그너의 저서 『히틀러의 정치 군인들』에 따르면 무장친위대도 1942년부터 강제 징집이 보편화되었고, 1944년 7월 20일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자원 입대는 완전 중단되었다. 미군과 영국군이 노르웨이에 상륙하고, 소련군이 독일군 중앙군단을 괴멸시키는 상황에서 히틀러는 독일 청년들을 그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징집한 것이다. 따라서 이후에 무장친위대에 배속된 모든 젊은이는 강제 징집자들이었다. 그라스도 그 중 한 명으로 1944년 9월에 징집당한 것이다. 1928년생 징집자들 중 무장친위대에 배속된 자는 9만 5천 명으로 전체 징집자의 17.3%에 달했다. 1943년에서 1945년 사이에 전체 군인의 수가 940만에서 780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무장친위대의 수는 같은 기간에 45만에서 83만 명으로 늘어나, 1945년 초에는 독일군의 10% 이상이 무장친위대 소속이었다.

디 차이트의 옌스 엡센이 그라스의 고백에는 “스캔들이 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그라스가 복무했던 전쟁 말기 몇 달 동안에 무장친위대는 더 이상 “광적인 자원 입대자들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소집된 징병자들로 이루어진” 부대였고, “그들은 서부 전선에서 가망 없는 방어전을 수행했을” 뿐이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보면 역사적 진상은 분명하다. 전쟁 말기에 무장친위대는 정규군의 일부였고, 강제 징집된 자들 다섯 중 한 명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장친위대에 배속된 것이다. 결국 무장친위대였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인물을 낙인찍는 것은 당시의 역사적 정황을 헤아리지 못하는 난센스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그라스 비판자들은 무장친위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자, 이제는 그의 ‘오랜 침묵’에 비판을 집중하였다. ‘문제는 그가 나치 무장친위대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지금까지 고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는 것이 비판의 골자였다. 그렇다면 그라스는 과연 자신의 과거 이력을 정말로 숨겨왔던 것일까.

그라스는 누구보다도 나치 과거 청산에 엄격한 태도를 견지해 온 인물이었고, 자신의 이런 입장과 관련하여 언제나 자신의 청년기의 정신적 혼돈과 미혹을 사례로 들었다. 예컨대 1999년 10월 그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의 청년기 교훈에서 정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의무라고, 다시 말해 여전히 남아있는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전쟁 말기에 17살이었다. 처음엔 히틀러 소년 단원이었다가, 다음에 공군 보조원이었고, 마지막엔 군인이 되었다.”

여기서 그라스가 침묵한 것을 굳이 찾는다면, ‘군인’ 대신에 ‘무장친위대의 군인’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것처럼 ‘정규군’과 ‘무장친위대’가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군인이었다고 말한 것을 대단히 부도덕한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정당한 태도인가. 게다가 오스트리아 작가 로베르트 쇤텔의 증언처럼 그라스는 20년 전부터 작가 모임에서 자신이 무장친위대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왔다. 또한 그라스는 자신이 확신에 찬 나치 청년이었다는 사실, 그가 즐겨 쓰는 표현대로 ‘나치 이데올로기의 불에 덴 아이’였다는 사실을 지난 60년 동안 줄기차게 강조해왔다. 따라서 “그라스의 고백엔 새로운 것이 없다”는 SZ의 구스타프 자임트의 말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그라스가 독일이 항복할 때까지 ‘최후의 승리’를 믿었고, 종전 후에도 몇 달 동안 독일의 대규모 범죄를 연합

군의 거짓 선전으로 여겼으며, 뉘른베르크 법정에서 히틀러소년단 단장인 발두르 폰 쉬라하의 고백을 듣고서야 ‘독일인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라스가 이미 여기저기서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이고, 아주 분명하게 묘사하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그라스를 나치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라스의 과거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라스를 무장친위대라고 비판하는 것은 독일의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라스의 침묵을 비판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섬세한 감각의 결여를 자인하는 것이다.

### 3. 논쟁의 본질

“그라스가 양과 까는 도구로 손에 쥐어준 칼을 그의 비방자들은 무기로 그의 몸에다 들이대고 있다.”

스위스 작가로 베를린 예술원 원장을 지낸 아돌프 무슈크의 이 말은 그라스 논쟁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 이 논쟁의 본질은 냉정하고 철저한 과거 청산을 위해 자신의 과거를 고통스럽게 성찰하는, 비유하면 ‘양과를 까는’ 그라스의 태도를 그의 비판자들이 악용해서, 그를 정치적으로 살해하려는 목적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그라스 논쟁의 본질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그라스가 청년 시절 자신이 체험한 이데올로기적 미혹에 대해 숨 막힐 정도로 집요한 성찰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점이고, 둘째, 이 논쟁이 비화, 확산된 것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며, 셋째는 이 논쟁이 공인의 개인적 과거 청

산을 어렵게 만드는 공론장의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것이고, 넷째, 이 논쟁은 현대 독일의 토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이다.

#### 1) 그라스의 엄격한 자기 성찰

그라스 논쟁의 발단이 된 자전소설 『양과 껍질을 벗기며』는 그라스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얼마나 엄격하고 고통스럽게 성찰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라스는 이 소설에서 자신이 청소년기에 겪은 이념적 혼돈과 미혹을 진솔하게 그리고 있다. 그는 15세에 ‘기적의 무기’에 홀려 독일군 잠수함 부대에 입대 신청을 했고, 전차 부대 대기자 명단에 올랐을 때는 ‘롬멜의 전차 군단’을 떠올리면서 들떴으며, 무장친위대 마크를 보고는 ‘엘리트 부대’라고 우쭐댔고, 종전 때까지도 ‘최후의 승리’를 확신했으며, 홀로코스트를 연합국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는 한 마디로 ‘히틀러의 아이’였다. 그는 성인이 된 이후 이러한 사실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었다. 오히려 ‘나치 이데올로기의 불에 탄’ 자신의 경험을 되새기며 평생에 걸쳐 자신의 정치 참여의 역사적 근거로 삼았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최신작 『양과 껍질을 벗기며』는 나치 시대에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행동과 왜곡된 의식의 기원을 집요하게 추적하는 자기 성찰적 소설이다. “어떻게 나는 그렇게 맹목적으로 이 이데올로기를 추종했는가? 왜 나는 폴란드인 삼촌이 1939년 단치히 폴란드 우체국 전투 이후 군법에 따라 총살 당했을 때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는가? 왜 나는 최후의 승리에 대해 회의적인 말을 했던 라틴어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아무 것도 묻지 않았을까?”

이런 의미에서 프리츠 라다츠가 디 차이트에 쓴 칼럼은 사태의 정곡을 찌른다. “그것을 일생일대의



거짓말이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 나 역시 ‘좀 늦은 고백’이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비난은 위선적이라고 생각한다.” 라다츠는 이 책이 “아주 특이하고 무척 슬픈 책”으로 “충격적이면서도 마음 속 깊이 감동을 준다”고 하면서, 이 소설을 그라스의 고통스런 자기 성찰의 기록이라고 본다. “그라스는 기억이라는 이름의 지글지글 타오르는 쇠꼬챙이로 불꽃을 일으키며 후벼 파듯이 고통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보고한다.” 라다츠는 특히 이 소설의 한 구절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정당화하지 않는” 그라스의 태도에 경탄한다. “그 청년을, 즉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만당했다’고 결코 말해서는 안 된다. 나는 스스로 기만당하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자학에 가까울 정도의 치절한 자기 성찰을 클라우스 레게비는 “그라스를 특징짓는 과잉 청산의 한 형식”이라고 평한다.

그라스는 왜 6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 고통스런 기억을 후벼 파는가. 나는 그것이 단순한 개인적 과거 청산을 위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평생의 과업으로 수행해 온 과거 청산 작업의 연장이요 완성이다. 그라스는 다시 독일의 젊은이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나치즘의 파괴적 매력에 경고를 보내고자 하는 것이다.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나치즘에 열광했다. 이러한 열광과 그 이유를 나는 추적하고자 했다. 『양철북』을 쓸 때 그랬고, 지금 또 반세기 후에 이 새 책을 쓸 때도 역시 그렇다.” 그라스는 이 자전소설을 통해 신나치의 유혹에 흔들리는 젊은 세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자 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자신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치부를 소설의 재료로 삼아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이 작품 자체로 ‘소설가’ 그라스의 작가적 양심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는다”는 서울대 임홍배 교수의 평가는 타당하다.

## 2) 언론의 정치적 캠페인

아돌프 무슈크는 8월 18일자 FAZ에 실린 「우리 모두를 위한 양과 희생자」라는 칼럼에서 그라스 논쟁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비판이 아니라, 오로지 비난으로 일관하는 언론은 분명 마지못해 권위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인물을 이제 기회를 잡자 강제로 해체하고, 기회주의자라고 중상 모략할 정도로 악담을 퍼붓는 데 만족하고 있다. 왜 그가 그렇게 오래 침묵했는가? 물론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지. 왜 그가 지금 털어놓는가? 물론 책을 팔아먹기 위해서지,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 독일의 신뢰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가를 그의 삶의 다층성과 작품의 다의성에서 보지 않고 하나의 단편만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결국 자기 편하를 꾀게 되는 독자들만 불쌍해진다. 이제 ‘상식’(common sense) 혹은 ‘양식’(bon sens)이라는 말에 상응하는 독일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시급하다. 나라면 ‘정신적 품위’(geistiger Anstand)라는 말을 제안하고 싶다.”

그라스 논쟁이 정신적 품위를 잃고 비열하고 천박한 비방으로 전락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한 작가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 이 ‘도덕적’ 논쟁이 사실은 고도의 ‘정치적’ 쟁투의 외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라스 논쟁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논쟁이었다. 이 논쟁은 지난 40년간 ‘독일 좌파 지식인의 대변인’으로 인정받아 온 그라스에 대한 우파 진영의 총체적인 공세의 성격을 지닌다. 다시 말해, 표적은 그라스의 개인적 도덕성이 아니라, 그가 지닌 정치적 상징성이다. 독일의 보수적인 언론과 정치인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공격을 퍼부은 것은 이 논쟁에서 ‘숙적’인 그라스가 지난 40년간 지켜온 요지부동의 위상을 와해시킬 절호의 기회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 논쟁이 정치적 성격을 지녔다는 것은 우선 그를 둘러싼 공방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확하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 벌어졌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그라스를 공격한 세력은 보수적인 우파 진영이다. 기민당의 정치인들과 빌트 및 디 벨트로 대표되는 수구 언론의 결합이 이 진영의 골간이다. 그래서 그라스 비판은 주로 빌트 지가 기민당 소속 정치인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 이라크전과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그라스의 입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온 유대인 단체가 가세했다. 이에 반해 그라스를 옹호한 세력은 진보적인 사민당 정치인들과 SZ, FR, 디 차이트 등 좌파 자유주의적 언론들이었다. 정통 보수지인 FAZ와 자유주의적인 슈피겔은 이번 논쟁에서 비교적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그라스 논쟁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작가들이 취한 입장이다. 세르비아인의 인종 청소를 지지하여 그라스의 신랄한 공격을 받았던 페터 한트케를 제외하면 거의 대다수의 작가들이 그라스의 입장을 옹호하고, 그의 ‘용기에 경의’를 표했다. 이들의 입장 표명은 이 ‘정치적’ 논쟁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인사들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라스 논쟁이 지닌 정치적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는 이 논쟁 직후 벌어진 하버마스의 나치 전력 논란이다. 그라스와 함께 독일 좌파 지식인의 또 다른 상징인 하버마스마저 나치 전력 논란에 휩싸임으로써 독일 좌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에 대한 조직적인 파괴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확산되었다.

그라스 논쟁에 뛰어들어 그를 맹렬히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하버마스 논란을 촉발시킨 인물은 다름 아닌 FAZ의 전 발행인 요아힘 페스트이다. 논란의 전말은 이렇다. 2006년 9월 죽기 직전에 내놓은 자서전 『나는 아니다』에서 요아힘 페스트는 전후에 “위대한 비판”을 통해 유명해진 인사들 가운데 과거의 나치들이 많다고 하면서, 하버마스를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이다. 그는 위르겐 하버마스를 – 물론 실명은 거명하지 않았으나 누구나 그가 겨냥하는 것이 하버마스임을 알 수 있다 – “존재의 모든 끈들이 제3 제국에 연결되어 있던 히틀러 소년단 지도자”라고 소개한다. 1980년대에 과거 히틀러 소년단의 하급자였던 한 인물이 하버마스가 1945년에 쓴 글을 그에게 건네주었는데, “총통에 대한 열렬한 충성과 최후의 승리에 대한 불굴의 신념이 담겨있는” 그 글을 보고 놀란 하버마스는 그 글이 쓰인 종이를 찢어서 입에 넣고 삼켜버렸다는 것이다. 페스트의 이런 주장은 곧 거짓으로 판명되었고, 하버마스는 이를 “70년대, 80년대에 횡행하던 정치적 물이 사냥의 속편”이라고 비판했던 것이다.

이처럼 우파 진영에서 그라스와 하버마스를 비난하고 무고하는 모습은 1990년 통일 공간에서 독일 통일과 관련하여 벌어진 ‘지식인 논쟁’이 이제 동일한 구도 속에서 소재만 달리하여 재연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3) 과거 청산의 딜레마

나치 연구 전문가이자 베를린 대학 역사학과 교수인 아놀프 바링은 그라스를 둘러싼 논쟁이 “많은 독일인들이 나치즘에 연루된 사정에 대해 냉정하고 그런 만큼 더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면서, 이 논쟁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였다. 다시 말해, 그라스 논쟁이 독일에서 보다 섬세한 개인적 과거 청산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실제 논쟁은 그의 기대를 빗나갔다. 많은 비판자들은 그라스의 개인적 과거 청산을 정치적 공세의 빌미로 삼았던 것이다. 이는 독일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다. 마르틴 발저는 바로 이러한 독일적 분위기에서 그라스가 오랫동안 침묵한 이유를 찾는다. “이 나라에서는 자유롭게 자기 자신의 과거를 정리해 보고, 편안하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도록 해주는 분위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건 독살의 분위기, 성급하게 혐의를 두고 평판을 더럽히는 분위기이다. 자유로이 견해를 밝힐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이다. 그라스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라스의 상황을 아주 잘 이해한다.” 발저는 “오늘날 가장 성숙한 사람조차도 자신이 강제적으로 무장친위대에 징집되었다는 사실을 60년 동안이나 밝힐 수 없었던” 상황이야말로 “우리의 과거 청산 분위기에 파멸적인 빛을 던지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독일에서 개인적 과거 청산을 어렵게 한 것은 이처럼 과거의 과오를 현재의 정치적 투쟁의 관점에서 재단하는 사회적 분위기였다. 사실 이번 그라스 논쟁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진정한 ‘과거 청산’보다는 ‘정치 논쟁’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라스가 그토록 자신의 에피소드를 밝히지 못한 이유 중에는 그것이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라스는 자신의 개인적인 과거 청산이 바람직한 공적인 과거 청산의 계기를 마련하기는커녕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 구스타프 자임트의 말대로 - “공인으로서 너무 일찍 도덕적 회색 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그라스의 사례는 독일에서 과거 청산 문제가 지닌 딜레마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 4) 독일 사회의 토대에 대한 성찰

그라스 논쟁은 또한 현대 독일이 어떠한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60년대 이후 독일 사회는 사실상 그라스 세대가 설정한 사회적 의제에 따라 발전하였고, 지금까지도 큰 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라스 논쟁은 단순한 개인사 청산의 차원을 넘어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라스를 부도덕하고 위선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곧 독일 사회의 토대 자체를 의문시하고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셀대학 사회학과 교수인 하인츠 부데가 8월 16일 SZ에 실은 칼럼 ‘학도병의 우월성’은 바로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그라스 논쟁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피고 있다. 부데는 “1926년에서 1929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공군 보조원 세대(Flakhelfer-Generation)가 여전히 독일연방공화국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하면서, 그라스(1927), 엔첸스베르거(1929), 하버마스(1929), 라칭어(1927) 등을 이 세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는다. 그는 이 세대가 여전히 “무대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서, 한 세대가 반세기에 걸쳐 사회의 가치관을 주도해 온 이러한 특이한 현상을 그라스의 사례를 통해 해명하려 한다.

“이데올로기에 현혹되어 자기 희생을 각오한 한 어린 병사가 어떻게 루이 암스트롱의 쾌활한 연주자요, 반항아 빌리 브란트를 위해 뛰어든 복치기요, 독일의 문명성이 지닌 최고의 전통에 대한 믿음직한 변호인이 될 수 있었을까?”

이는 곧 현대 독일의 토대에 대한 도발적인 물음이다. 자유 정신과 참여 정치, 진보적 문명관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끝에서 ‘이데올로기에 현혹된 나치 병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데는 그라스 논쟁의 “홍분 속에 숨어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불신”이라고 본다. “독일은 매우

불순한 원천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독일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불신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순한 원천에서 또한 “『양철북』, 『늑대를 위한 변명』, 『공론장의 구조 변동』, 혹은 『기독교 개론』이 탄생”했다. 즉 현대 독일의 토대를 이루는 “개방적인 미래의 모델들”이 생겨난 것이다.

부데는 그라스 세대의 장점을 상이한 정치 체제를 경험해 보았다는 데서 찾는다. 그들은 “인간의 행위 유형이 어떻게 바뀌고, 동일시의 대상이 어떻게 교체되는지”를 보았고, 그 기억을 결코 잊지 않았기 때문에, “테러리즘, 근본주의, 인종주의 같은 문명적 퇴행 현상들”에 대해 날카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라스가

젊은 시절 나치 병사로서 이데올로기적 혼돈을 겪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그를 독일의 진정한 대표자로 만들었”고, “그의 인격에 독특한 역사적 신뢰성을 부여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분석을 근거로 부데는 “귄터 그라스는 독일의 품격 있는 노벨상 수상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청년기에 이데올로기적 혼란을 경험한 그라스 세대의 집단적 트라우마가 현대 독일의 민주적 발전과 개방적 의식의 토대가 되었다는 부데의 관점은 역사의 변증법적 행보를 헤아리는 사려 깊은 안목을 보여주고, 그라스 논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게 한다.

FES-Information-Series는 유럽의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Information-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Information-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or.kr>)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07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Cooperation Office